

서 순결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방종, 타락, 세속화는 멀어질 뿐이다.

### V. 결 어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섬약한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속에 있듯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속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복음이기도 하다. 이 걸음의 주체가 되는 성도는 죄의 경향성이 있으며, 죽음과 깊이 관련된 육체를 갖고 있고, 또한 주위에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 거룩을 향하여 채근하는 하나님의 독려는 조금도 실패를 주지 않는다. 계속적인 자기부인은 고통스럽고, 주의 제자의 길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은 강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때 까지 계속된다. 만약 한가지 시험이 끝나면 다른 모양으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때 끝없이 반대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여기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적을 알고있는 신자만이다. 적의 접근을 탐지하고 그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신자만이 안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다.

## 커뮤니케이션 原理와 信仰教育

姜 勇 元\*

### ◇ 目 次 ◇

- I. 序 論
- II. 커뮤니케이션의 原理的 考察
- III. 커뮤니케이션과 信仰教育
- IV. 結 論

### I. 序 論

信仰教育의 현장에는 대단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教師들의 言語는 하나님의 眞理를 전달하고 學生들을 成長하도록 도와주는 의사전달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教師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學生들은 그 말을 듣지 않으며, 어떤 말들은 그저 허공을 치고 사라져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 또한 學生들에게 그 말이 전달된다고 해도,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學生들에게 내면화되며, 學生들을 變化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現實을 감안하면서 筆者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온 커뮤니케이션의 原理가 信仰教育이라는 次元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되었다. 本稿에서 筆者는 커뮤니케이션의 一般的인 原理를 구명하고, 그 원리를 信仰教育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宣敎의 문제와 연관시켜왔는데, 이 論文에서는 次元을 약간 달리하여 敎育이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보려고 한다. 현재 커뮤니케이션과 敎育의 문제를 다룬 글은 그 수가 대단히 희소하고 또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지않은 實情이다. 따라서 本稿역시 그 깊이의 眞박성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것임을 밝혀둔다.

\* 專任講師

## II. 커뮤니케이션의 原理的 考察

### A. 커뮤니케이션의 定義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용어는 아직 적당한 우리말로 번역되지 못한 채 영어의 發音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 말은 원래 共通, 혹은 共有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ommunis”를 그 語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말은 라틴어 動詞 “communicare”와 관련되는데, 이 말의 뜻은 협의한다 혹은 대담한다는 뜻이다.<sup>2)</sup>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文字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organism)가 다른 유기체와 知識, 정보, 의견, 信念, 感情, 經驗등을 共有 또는 나누어 갖는 行爲라고 하겠다.<sup>3)</sup>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대단히 복잡하고도 多樣하기 때문에 이 말을 定義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接近하기 爲해 몇가지 定義들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Britannica 사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상징들의 공동체계를 통한 個體들 사이의 意味交換”<sup>4)</sup> 이라고 정의하였다. Webster 사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행위’ ‘전달된 사실이나 정보’ ‘생각이나 의견의 상호교환’ ‘효과적인 사상의 표현을 다루는 藝術’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sup>5)</sup> J. H. Platt는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生物體와 外界가 結合되어 있다는 基本的 事實을 가르키며, 학문적으로는 生物體가 相互間에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과 서로 理解할 수 있다는 事實, 內的인 사건이나 狀態를 表現하고 다른 사람에게 意味와 內容을 전달하며, 어떤 特定한 行動을 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는 事實”이라고 하였다.<sup>6)</sup> Raymond McLaughlin은 “커뮤니케이션은 미리 결정된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目的으로 정보를 나누어 갖는 것”<sup>7)</sup> 이라고 하였다. (Communication is the sharing of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ffecting the receiver in some predetermined way.) 이 외에도 많은 정의가 있으나<sup>8)</sup>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상징을 사용하여 서로의 경험과 의미와 사상을 나누어 갖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B. 커뮤니케이션의 分類

커뮤니케이션을 형태상으로(type) 나누어 보면 크게 세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내적 커뮤니

- 1) 보통 “의사전달”, 혹은 “의사소통”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2) cf. 차 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세영사, 1976), pp. 18f.
- 3) 최 창섭,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8), p.30.
- 4)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 s.v. “Communication.”
- 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6) Ronald Applebaum, Fundamental Concepts in Human Communication (Canfield press, 1973), Appendix, 최 창섭, op. cit., p.31에서 재인용
- 7) Raymond Mc Laughlin, Communication for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68), P.17.
- 8)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미전달과정”(C.R. Wright) “생물체간의 의미전달”(Maletzke) “커뮤니케이션이란 그것을 통하여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또 발달하는 메카니즘(mechanism)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신의 모든 상징 및 그것을 공간적으로 운반하고, 시간적으로 보존 유지하는 수단이다”(C.H. Cooley)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적인 것을 만들려는 行爲”(Schramm)

케이션(intra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사람의 内部에서 일어나는 反省, 內的論爭이나 갈등, 評價, 가치판단, 결정 등의 行爲를 말한다. 이것은 매우 광범한 內的인 精神作用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한가지 分명한 사실은 重生되기 전의 人間은 內的 커뮤니케이션이 自己中心性(egocentricity)을 가지나, 重生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중심성(Christocentricity)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sup>9)</sup> 커뮤니케이션의 두번째 형태는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세번째 형태는 집단 커뮤니케이션(group communication)으로 어떤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sup>10)</sup>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두가지 수준(level)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이며 또 하나는 非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非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광범위한 要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 非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은 메타 커뮤니케이션(metacommunication) 혹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about communic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sup>11)</sup> 흔히 우리는 말과 글만이 意思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말과 글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要因들이 實際로 意思傳達의 行爲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자세라든가 제스처(몸짓), 의상 등이 의사전달에 관여하며, 또한 時間과 空間的인 要因들도 여기에 관여된다. 時間的 要因의 예를 들면 定한 時間을 어긴다거나, 定한 시간을 넘어서 지루하게 이야기를 계속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않은 意思를 전달하는 것이 된다. 空間的 要因의 예를 든다면, 거리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앉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가 곧 심리적인 거리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구분으로 일방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one-way communication)과 상호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방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傳達하기 때문에, 듣는 자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게된다. 그러나 상호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傳達者의 意思에 대해 듣는자가 계속 反應을 보임으로 積極性을 띠게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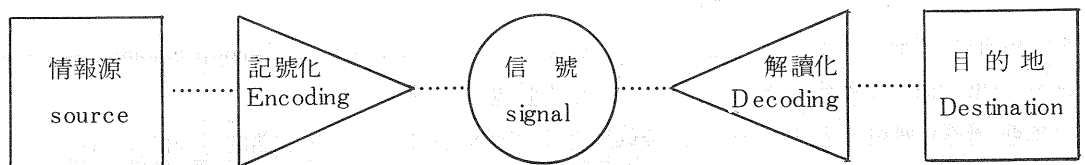
### C. 커뮤니케이션의 過程

커뮤니케이션의 定義에서도 본 바와같이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은 몇개의 요소 즉 送信者(communicator), 메시지(message), 受信者(receiver or recipient), 효과(effect), 커뮤니케이션이 發生하는 狀況(context), 미디어(media) 등으로 構成된다.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을 쉽게 묘사해

- 9) Raymond McLaughlin, op. cit., pp.62-65.
- 10) 여기에 덧붙여 mass communication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기계적인 또는 기술적인 매체의 힘을 빌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것을 말한다.
- 11) Jurgen Ruesch and Gregory Bateson, Communication The Social Matrix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51), pp. 23-24. Quoted in Raymond McLaughlin, op. cit.,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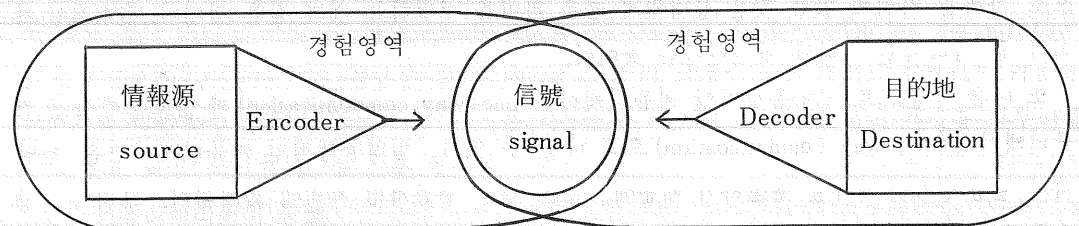
본다면 전달자가 자신의 심적내용을 記號化하여 이것을 一定한 다른 物理的 자극으로 전환시켜 내 보내면, 이 자극이 운반되고, 그 자극을 수신자가 받으면 그 記號를 解讀하여 의미를 再現시키는 過程을 말한다.

Claude E. Shannon은 Warren Weaver와 함께 1949년에 出刊된 그의 著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基本過程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sup>12)</sup>



Shannon과 Weaver는 커뮤니케이션을 메시지가 情報源에서 目的地까지 傳達되는 過程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 전달과정을 構體的으로 살펴보면 情報源(source) 혹은 송신자가 정보(information)를 記號化를 통하여 메시지로 作成하며, 作成된 메시지는 음파나 전파등의 信號로 바뀌어 채널(channel)을 통하여 전달된다. 전달된 메시지는 目的地(destination) 혹은 受信者(recipient)에게서 解讀되고 理解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정보전달과정에 重점을 둔 결과 人間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說明하기 보다는 기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체계(mechanical communication system)의 구조를 說明하는 것이라 하겠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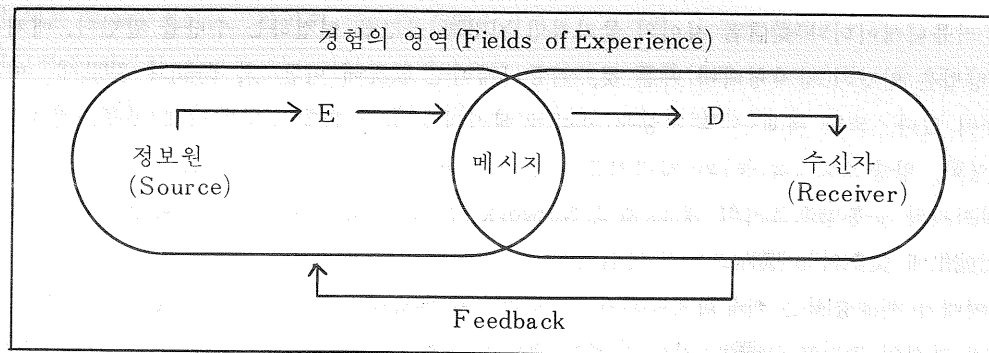
Schramm은 Shannon, Weaver의 모형을 發展시켜 人間の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說明에 보다 合理的인 模型을 提示하고 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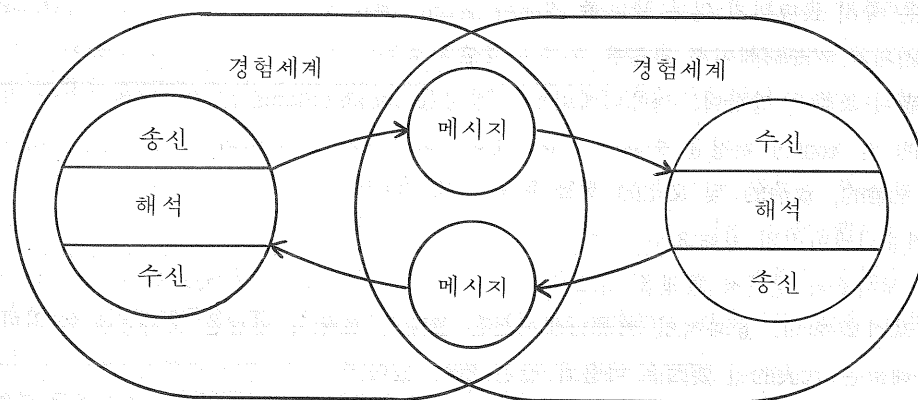
이 모형은 두 個體 사이에 있어서 共通된 理解의 領域을 所有하는 關係를 強助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經驗領域 사이의 共有된 部分이 存在하여야 하며, 共有된 部分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의 容易度는 증가한다고 보겠다.

Donald Ely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한다.<sup>15)</sup> 이 도식은 휘드백을 제외하면 위의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12) Shannon & Weaver,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9), p. 5.  
 13) 최 창섭, *op. cit.*, pp. 36-37.  
 14) W. Schramm, "How Communication Works" in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5), p.6.  
 15) Kenneth O. Gangel, *Building Leaders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81), p.306.



또한 送信者和 受信者사이의 순환적 關係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圖式化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더 잘 理解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要素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sup>16)</sup>

情報源(source) 혹은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遂行하는 主體를 意味하는 것으로, 個人일수도 있고, 集團 혹은 組織體일 수도 있다. 이러한 行爲主體는 그 나름대로의 目的과 속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속성이라 함은 情報源이 갖는 態度, 知識, 技術, 傾向(predisposition) 또는 公信用(source credibility) 등 커뮤니케이션 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特性을 意味한다. 記號化(encoding)는 커뮤니케이터가 受信者에게 傳達하고자 하는 어떤 意味를 兩者가 共通으로 理解하는 記號로 바꾸어주는 過程을 말한다. 이때의 記號에는 言語的인 記號와 非言語的인 記號가 있다. 메시지(message)란 情報源으로서의 커뮤니케이터가 目的地인 受信者에게 자신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考案한 내용과 상징들의 集合體, 즉 커뮤니케이터의 思考가 記號化를 거쳐 겉으로 表出된 狀態를 意味한다. 信號(signal)는 記號化된 메시지를 目的地에 傳達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힘에는 전파, 광파, 음파등이 있다. 이러한 힘은 미디어 혹은 채널(channel)을 통하여 메시지를 운반하게 된다. 매체(Media)는 독립된 유기

16) 최 창섭, *op. cit.*, pp.38-40.

체인 커뮤니케이터와 受信者 사이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수단을 말한다. 매체의 분류방법은 인간의 감각형태에 따른 것, 커뮤니케이션 狀況에 따른 것, 時間과 空間에 따른 것 등이 있다. 또한 매체는 그 기능에 따라서 메시지를 담는 容器로서의 매체(신문, 잡지, 서적,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와 메시지를 운반하는 운반체로서의 매체(음파, 광파, 전파 등) 및 메시지의 유통망으로서의 매체(채널, Network 등)로 分類할 수도 있다. 解讀化(decoding)는 記號化에 反對되는 過程으로서 受信者는 도달된 記號를 自身の 意味體系 속에서 해석하는데, 이때의 해석능력은 커뮤니케이터가 보낸 기호의 理解能力에 左右된다. 實상 記號化는 해독화의 과정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受信者(receiver) 혹은 목적지(destination)란 커뮤니케이터가 메시지를 받게되는 표적으로서의 한 個人이나 集團을 가르킨다. 効果(effects)란 受信者가 커뮤니케이터의 자극에 대하여 나타나는 反應全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反應은 즉시 表現되지 않은 受信者 内部的 潛在的 變化까지도 포함된다. 攄드백(feedback)이란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受信者로부터 커뮤니케이터에게 되돌아오는 정도 즉 受信者의 反應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상황(context, setting)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時代的 및 地理的 環境을 뜻하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분위기, 장소, 시간, 수신자와의 관계나 社會的, 政治的 및 文化的 背景 등을 意味한다.<sup>17)</sup>

D. 커뮤니케이션의 방해요소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原理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意味와 意味의 만남을 뜻하는데 이 의미의 만남을 방해하는 代表的인 要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18)</sup>

첫째로, 言語(language)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많은 성경의 용어나 신학적 언어가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의 本來의 意味를 말할 뿐 아니라, 그 意味를 오늘의 삶에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背景과 經驗에 따라 같은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두번째 방해 要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images)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先入見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때가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쌍방이 갖는 不安(anxieties)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 이 不安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용(subject matter)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교사는 주어진 時間에 內容들 다 취급해야 한다는 불안을 갖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에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不安은 아무리 메시지가 다 전달되었다해도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네번째 방해요소는 자기방어(defensiveness)이다. 이것은 不安의 要素가 자신을 위협할때 흔히 취하

17) 차 배근, *op. cit.*, pp.36-37.

18) cf. Reuel Howe, "The Dialogical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ed. by Marvin J. Taylo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1966), p. 86.

게 되는 행동양식이다. 자기의 행동을 合理化시키고, 실패를 남에게 轉嫁시키는 일은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差異(differences)들, 즉 나이, 性, 교육수준, 背景 등의 차이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E. 커뮤니케이션의 原理

여기서는 많은 學者들에 의해 연구된 커뮤니케이션의 제반 原理들을 檢討하기로 하겠다.<sup>19)</sup> 첫째, 反復(redundancy)의 原理이다. 이것은 메시지를 反復하고 再強調함으로써 메시지를 보다 分明히 하고, 確實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情報의 重復에는 지루함이나 時間의 낭비라는 결점이 있기는 하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피할 수 없는 原理이다.

둘째, 攄드백(feedback)의 原理이다. 攄드백이란 送信者에게 돌아오는 受信者의 反應으로,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이러한 攄드백 作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直線的인 體系를 脫皮하여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고 相互作用的인 過程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터가 攄드백에 대해 關心을 갖고 能動的으로 追求하면 자신의 立場을 把握할 수 있어 成功的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되나, 失敗의 反應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적절한 情報量(retroactive inhibition)이 必要하다.<sup>20)</sup>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한번에 너무 많은 量을 전달해서는 안된다. 一時에 지나치게 많은 量을 제공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特히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短點중의 하나는 多量의 情報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受信者의 消化의 한계를 넘어 無關心을 表明하는 경우이다.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라도 간격을 띄워서 간단하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는 슬리퍼효과(sleeper effect)이다.<sup>21)</sup>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자기가 신뢰하는 情報源(source)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보다 쉽게 수락한다는 事實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傾向도 長期的으로 볼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研究結果가 나왔다. 즉 사람은 오랜 時間이 경과하면 情報源에 對한 公信用에 無關하게 情報源을 忘却하고, 結局은 전해진 內容만을 記憶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슬리퍼 효과란 이와같이 情報內容보다는 情報源을 보다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향은 產業廣告의 成功을 위한 貴重한 基盤이 되고 있다.<sup>23)</sup>

19) cf. 최 창섭, *op. cit.*, pp.43-47.

20) 호주의 토족들 간에는 던진 무기가 적을 맞지 않으면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그들 특유의 민속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의 이름은 부머랭(Boomerang)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무기와 같은 작용이 있다하여 이것을 부머랭 효과라고 한다. 즉 상대방과 이야기할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혼자 열띠게 너무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 방어의 기전이 작용하여 그 말이 거절을 당한채, 상대방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21) 이것은 "잠재효과"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22) 이것을 情報源의 公信用(source credibility)이라 한다. 사람은 그들이 믿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잘 수락하나, 公信用이 낮은것으로 부터는 메시지를 거절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23) 이 문제와 관련하여 非基督敎的 環境에서 살아가는 基督敎人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

다섯째로, 選擇的 知각(Selective perception)의 原理이다. 커뮤니케이션의 原理로서 重要한 것은 人間은 자기의 경험을 자신의 認知형태로 조직화하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은 그가 본 새로운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는 概念과 思考의 틀 속에 맞추어 인식하고 지각한다는 것이다.<sup>24)</sup> 이와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受信者가 갖고있는 既存性向을 理解하고 그러한 지각형태(perception pattern)와 틀(framework)에 맞도록 메시지를 作成하여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遂行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디어의 能力(Media capabilities)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에 있어 重要的 사항 은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對한 特性을 理解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 는 그 特性이 多様하기 때문이다. 全體的인 文化의 狀況에서 미디어의 효과와 影響을 파악하 려고 努力한 사람은 McLuhan을 들수 있다. 그는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는 命題로부터 出發하 여 메시지 內容보다도 미디어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미디어가 人間의 世界에 對한 知覺方法 과 삶 의 組織방법에 影響을 미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sup>25)</sup> 効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서 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結合하여 使用하면서, 同時에 個人的 접촉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補完해야 한다는 點이다.

### Ⅲ. 커뮤니케이션과 信仰教育

#### A. 對話<sup>26)</sup>로서의 教育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란 本質적으로 相互作用的이며, 相互通行的인 것이다. 또한 相互通行的(two-way)인 커뮤니케이션이 一方通行的(one-way)인 커뮤니케이션 보다 더욱 効果적이라는 것도 살펴 보았다. 오늘날의 教會의 教育的 構造를 보면(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一方通行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教師는 말하고 學生은 듣는다. 敎人들은 教會에 가서 一方的으로 앉아서 듣고만 온다. 이러한 結果로 敎인들은 자연 參與意 識이 없고, 受動的인 삶을 살게 되기 쉽다. 다시말하면 教會가 敎人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狀況을 꼬집어 말하기를 教會는 敎人들을 “전문적인 청취자(professional listener)”로 만들거나 “학점이 필요없는 청강생”으로 만든다고 한다. 앞으로 한국교 회는 教育構造를 相互通行的인 構造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生動力이고 活氣넘치는 教會의 삶을 이루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最近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爲하여 소그룹 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對한 研究가 깊이있게 進行되고 있다.<sup>27)</sup> 소그룹의 가장 重要的 장점은 깊이있는 親交와 對話關係를 쉽게 確

24) G.A. Lundberg는 “Men observe with the eye of the past” 라는 말을 썼다.

25)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A signet Book, The New American Library, 1964)

26) 對話에 關해서는 筆者의 “對話의 原理”를 참고하라. 高神大學報 제60호(1981. 5. 19字)

27) cf. Clyde Reid, *Groups Alive, Church Alive-The Effective Use of Small Groups In the Local Church* (New York: Harper & Row, 1969) 이 책은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保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소그룹이 강조하는 人間關係는 相互受容(mutual acceptance)의 關係”라고 말할 수 있겠다.<sup>28)</sup>

우리 주님께서도 世上에 계실 때, 對話의 方法을 그의 教育에서 많이 使用하셨고<sup>29)</sup> 개인적인 친교의 關係를 강조하셨다. 한 조사에 의하면 四福音書에 나타난 예수님의 教育狀況(275회)을 教育 對象者의 數에 따라 分類하니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고 한다. 큰 무리(large group) 71회, 소그룹(small group) 76회, 12제자 48회, 두 사람 17회, 한 사람 63회 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75% 이상을 작은 수의 사람을 가르침으로 個人的인 接觸을 重視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0)</sup>

Reuel L. Howe는 Martin Buber의 哲學을 基礎로 對話를 그의 教育論의 基盤으로 삼았다. 그는 教育的 悲劇은 敎師에 의해서 學生이 獨점되는데 있다고 말하면서,<sup>31)</sup> “對話的이 아닌 教育, 人間關係, 사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惡한 것인데, 그 理由는 저들이 남을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sup>32)</sup>

Martin Buber는 그의 教育論에서 “강제학과”(compulsory school)와 “자유학과”(free school) 또는 “전통적 권위에 의해서 규정된 舊教育”과 “自由에의 傾向에 의해서 규정된 新教育”을 비판하고<sup>33)</sup> 자신의 제3 원리를 確立한다. 그는 그 原理를 抱擁(inculsion)이라는 말로 표현 한다.

“抱擁(inculsion)은 자기자신의 구체성의 확대요, 생의 구체적 상황의 충족이요, 人間이 참 여하고 있는 현실의 틀림없는 現前(complete presence)이다. 포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어떤 성질을 가졌든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아뭏든 두 인격 간의 關係 이다. 둘째는 양자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체험되며, 적어도 양자 중 하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있는 한 사건이다. 셋째는 이 한 사람이 이 공통의 事實을, 자기 자신이 행위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나도 잃지 않은 채 동시에 타자측에서 체험한다는 事實이다. 다소의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포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서 규정되는 두 인격 간의 關係를 우리는 대화적 關係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sup>34)</sup> 그는 對話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出生과 死亡 사이에서 부스러지기 쉬운 이 연약한 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생이 대화(dialogue)라 면 하나의 충실한 생이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sup>35)</sup>

L. J. Sherrill은 기독교교육을 “하나님과 의 關係에서, 教會와의 關係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關係에서, 세계와의 關係에서, 자기 자신과의 關係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도하고,

28) 정 응섭, “그룹方法和 人間變容”, 기독교 教育의 이론과 실제(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p. 376.

29) 요3: 1~21; 요4: 1~26; 막10: 17~22; 눅18: 18~30; 눅24: 13~35등

30) Martha M. Leypoldt, *Learning is change* (Valley Forge: Judson Press, 1971), pp. 65 - 66

31) Reuel Howe, *op. cit.*, pp. 92 - 93.

32) Reuel Howe, *The Miracle of Dialogue*. 김 관석 역, 대화의 기적(서울: 대한기독교 教育협회, 1975), p. 47.

33)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남 정길역, 사람과 사람사이(서울: 전광사, 1979), pp. 153 - 154.

34) *Ibid.*, p. 166.

35) *Ibid.*, p. 159.

또 직접 참여하는 기독교 공동체 회원들의 시도”라고 말하면서(Christian education is the attempt, ordinarily by members of the Christian community, to participate in and to guide the changes which take place in person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God, with the church, with other persons, with the physical world, and with oneself)<sup>36)</sup>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相互通行의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은 생존경쟁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진통제이다”<sup>37)</sup>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상호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상호통행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두 人格體가 피차 존경함으로 마음을 열어 자신을 주고 받음으로 두 인격이 한데 만나 깊은 理解에 도달함을 말한다. 오늘날 교회나 社會를 막론하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압력, 선전, 조작 등)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

筆者의 견해로는 信仰教育을 그 근간으로 하는 基督教教育은 한마디로 知識의 傳達(注入)을 초월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이런 信仰教育이란 모름지기 告白과 干證의 次元에서 具體的인 삶 속에서 實行되는 生活體驗의 共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信仰이란 권위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注入되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信仰의 成長은 相互理解를 基礎한 對話의 信賴關係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Henri Nouwen은 一方的인 教育을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救濟的(redemptive)인 教育을 이루기 위한 條件으로 雙方的인 教育을 다음과같이 強調하고 있다.

“救濟的 教育過程의 두번째 特徵은 雙務的이다. 學生이 教師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教師도 學生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教師가 學生을 자기 教師로 삼아 스스로 生徒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의 가르침이 구제적 과정이 될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은 다 함께 무엇이 眞理이고 무엇이 意味있는 것이며 무엇이 價値있는가를 探究하는 同志가 되고 어느정도 상대방의 역할을 나누어 지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生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고 學生이 스스로 배우도록 자유롭게 놓아두는 교사가 거의 없음은 슬픈 일이다. 그들은 學生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事實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신이 깎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學生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그들을 공포감에서 解放하여 자유로이 成長하도록 만드는 상호관계가 조성된다는 事實을 깨닫지 못한다. 이 구제적 학습과정에서 重要的 것은 教師의 知的 優越성이 아니고, 미지의 사실에 봉착했을때 그 문제를 타개하는 成熟된 자세와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로 보류하고 넘어갈 줄 아는 아량이다. 교육과정이 쌍무적이 되려면 생각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開放的인 教授過程이어야 한다. …… 教師와 學生이 서로 배우려는 자세로 學習에 임하면 그 學習은 지리하지 않은 “創造的 過程”이 될 수 있다. 이

36) Lewis Joseph Sherrill, *The Gift of Power*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p. 82.  
 37) J. Ruesch and G. Bateson, *Communication, the Social Matrix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 Co., 1951), p. 92, Quoted in *Ibid.*, p. 84.

같은 人間關係에서만 學習다운 學習이 이루어 진다.”<sup>38)</sup>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의 教會 教育은 그 구조상 教師中心, 注入式, 下向式, 知識傳達爲主를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물론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福되다.<sup>39)</sup> 그러나 주면서 상대방에게 받기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奉仕는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 또는 그가 남에게 무엇을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일이 아닌가 한다.<sup>40)</sup> 이런 점에서 教師가 學生들에게 一方的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B. 言語를 초월하는 教育

前述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非言語的인 것으로도 전달된다. R. Harrison은 言語的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것은 35%이며, 나머지 65%는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된다고 한다.<sup>41)</sup> 이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은 목소리의 어조라든가, 몸짓, 손짓, 얼굴표정, 눈빛, 움직임, 對話上의 位置, 말의 長短, 고저 등 커뮤니케이션의 전 영역이 포함된다. 메시지는 口語 뿐만 아니라 身體語(body language)에 의해서도 소통되며, 身體語는 口語보다 전달 속도가 빠르다.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를 구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類似言語(paralanguage) :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 쉼(pause), 음의 고저, 음의 變異(vocal differentiation) ② 行動言語(body language) : 자세, 태도, 얼굴표정, 말하는 사람의 움직임 ③ 對象言語(object language) : 사물의 배열, 옷차림, 머리 스타일 ④ 접촉(tactile communication) : 신체적 접촉에 의해 행해지는 가장 최초적이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⑤ 時間과 空間 등이다. 사람은 결코 커뮤니케이션을 피할 수 없다. 口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은 피할 수 있다해도 非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行爲를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키는 그 自體도 메시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對話가 없다는 事實로서만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같은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새로운 關心과 研究는 教育的인 면에서 몇가지 시사를 준다 하겠다.

첫째는 지나친 言語 의존 현상에 對한 反省이다. 우리에게는 흔히 모든 學習이 言語의 通路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傾向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學習은 言語의 通路보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效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事實을 인식하여야 한다. 學生들은 여러가지 상징의 통로를 통해서 배우며, 非言語的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분위기나, 느낌을 통해서 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수께서도 이런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사용하셨다.<sup>42)</sup>

둘째는 信仰教育에 필요한 모본의 문제이다. 學生이 배우는 것은 결코 教師의 말만은 아니

38) Henri Nouwen, *Creative Ministry*. 성 열 옮김, 새 시대의 사목(성바오로 출판사, 1979), pp. 27-28.  
 39) 행20 : 35  
 40) Henri Nouwen, *op. cit.*, p. 32.  
 41) 최 창섭, *op. cit.*, p. 52.  
 42) 예를 들면 마 : 15 : 23; 요8 : 1-11; 눅22 : 61; 막4 : 38등



육에 있어서 言語偏重의 결함을 해결시켜 주며, 興味로운 교육, 迅速하고도 長期的인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배우고 믿게하는 신앙지식이 단편적이 아니고, 全人的 실제경험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은 잠재적 가능성과 위력이 전인적 교육을 이상적으로 하려는 기독교 교육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만큼 Media의 응용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sup>48)</sup>

넷째, 教師는 항상 듣는자의 反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過程이란 공을 주고 받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기에 듣는자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相互關係가 重要하며, 전달자는 항상 듣는자의 反應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전달자는 그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었는가를 잘 把握해야 하는데 이를 휘드백 (feedback)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어진 메시지가 成就하는 성공의 정도는 휘드백에 의해 決定될 수 있다. 휘드백은 教師에게 그가 얼마나 그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성공했는가에 關한 情報를 제공해 준다. 휘드백은 숨을 수도 있고, 명백히 드러날 수도 있다. …… 教師는 항상 그의 목표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 휘드백을 끌어내야 한다. 휘드백은 앞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記號化 (encode) 될 것인가를 決定하는 일을 도운다.”<sup>49)</sup> 이것은 마치 教育의 全 過程에서 評價의 行爲가 作用해야 하는 것과 흡사하다. 教師들은 學生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할 때에 學生들의 휘드백을 들을 수 있는 方法까지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學生들의 反應은 주로 討議, 지각적인 질문 (perceptive question), 혹은 表現活動 등을 통해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내용에 크게 관계한다. 內容 자체의 구조나 순서, 관련성 등이 모호하다면 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한다.<sup>50)</sup>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해도 곤란하다.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核心이나 概念이 뚜렷하게 부각되도록 하며, 이를 적절한 단계로 조직하되 그것의 內的 統一性和 論理性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原理는 教育의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研究의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고있다 하겠다.

D. 커뮤니케이션의 制限性和 可能性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人間은 本來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存在로 創造되었다. 또한 人間에게는 充分한 자유가 부여되었고 극히 부분적이긴 하나 制限이 수반되었다.<sup>51)</sup> 이 自由의 制限은 주어진 자유로 하여금 참된 자유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유와 제한, 이 두 가지는 人間의 本質을 나타내는 균형적인 要素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참된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단절되는 것은 필연적인 事實이다. 불행하게도 처음 사람들은 스스로의 制限성을 發揮하지 못함으로써 創造主와 人間 사이의 靈的 커뮤니케이션에 결렬

48) Ibid., p.74 .

49) Donald P.Ely, "Are We Getting Through to Each 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962. 5), p. 5.

50) cf. Raymond McLaughlin, *op. cit.*, pp. 79-83.

51) 창2 : 16, 17.

을 초래하였다. 그 후 人間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차 시도에서 人間들 사이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마저 결렬을 초래하게 되었다.<sup>52)</sup> 두 차례의 결렬로 말미암아 人間들은 靈的인 面에서나 社會的인 面에서 完全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잠재적 失敗要素를 지니게 되었다. 人間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스스로 制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基督教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커뮤니케이션의 可能性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독교인의 첫번째 가능성은 聖靈에게 있다.<sup>53)</sup> 사도행전 2 장은 聖靈의 役事를 통해서 말이 통하게 된 이야기이다. 성령님은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시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特히 信仰教育을 靈的인 次元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파악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복음 전달에 있어서의 出發과 결과는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宣敎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人間을 도구로 使用하시지만 最後의 結果인 弟子가 되는 것은 全的으로 성령의 역사이다. 거기에는 人間의 자량이 개입치 못한다.<sup>54)</sup> 教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르치는 자는 항상 자신의 자원을 의존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sup>55)</sup> Roy B. Zuck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교육은 감격이 넘치는 하나의 영적 모험이다. 그 이유는 聖靈께서 기독교 敎사 속에서 能力있게 역사하시며, 學生들의 머리 위에 혹은 마음 속에도 역사하시되 창조적 방법과 재료를 통해 역사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때문이다. …… 敎育과 학습과정은 基督教 敎育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상급있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축복의 성령과 協力할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結實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sup>56)</sup>

基督教인이 가진 두번째 커뮤니케이션의 可能性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기독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참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體驗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本質上 주는 것이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利用하려는 마음에서는 不可能하며, 나를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勇氣와 能力이 있을 때 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敎師와 學生간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랑을 基礎한 것일 때 더욱 確固한 것이다. 基督教人들은 眞正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래서 敎師들이 聖靈을 의지하고, 사랑을 기초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追求할 때, 거기에 學生들을 變化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낳는 祝福이 주어질 것이다.

52) 창11 : 1-9

53) cf. Raymond McLaughlin, *op. cit.*, pp. 194-200.

54) Peter Wagner, *Frontiers in Missionary Strategy*. 전 호진 역, 기독교의 선교전략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8), p. 30.

55) 고전3 : 7

56) Roy B. Zuck,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권 성수 역, 성령과 敎育(서울: 영음사, 1977), p. 161.

57) cf. Raymond McLaughlin, *op. cit.*, pp. 200-211.



## IV. 結 論

以上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一般의 原理와 그 信仰教育的인 적용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信仰教育에 使用될 수 있으며, 信仰 전달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研究를 통해서 筆者는 信仰學習을 爲한 몇가지 重要한 原理를 發見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로, 眞正한 變化란 무의미한 空間에서는 결코 不可能하며, 意味가 共有되는 상황(context of meaning)에서 가능케 된다.

둘째로, 의미있는 學習은 教師와 學生, 그리고 學生 相互間의 적합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셋째로 느낌의 要素는 學習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作用을 한다.

넷째, 相互通行的인 커뮤니케이션은 變化를 위한 분위기를 助成한다.

다섯째, 非言語的 커뮤니케이션은 言語的 커뮤니케이션 만큼이나 重要한 역할을 한다.

여섯째, 휘드백은 교수-학습 狀況에서 계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물리적 환경과 설비 역시 學習을 도울 수 있다.

끝으로, 진정한 기독교적 커뮤니케이션의 資源은 성령과 사랑인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方面에 많은 研究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 \* 참고도서목록 \*

- 김 동승.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81.  
이 원희. “복음 전달자를 위한 매개체에 대한 소고” 서울신대 회보 44호(1977.8) : 2-3.  
———. “효과적 기독교 교육과 Media”, 신학사상 20(1978.3) : 53-74.  
차 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 세영사, 1976.  
최 창섭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 성 바오로 출판사, 1978.  
최 호진.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 선교”,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79.  
Buber, Martin. *Between Man and Man*. 남 정길 역, 사람과 사람 사이. 서울 : 전망사, 1979.  
Engel, James. *How Can I Get Them to Listen*. Grand Rapids : Zondervan, 1977.  
Gangel, Kenneth O. *Building Leaders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70.  
Howe, Reuel. “The Dialogical Found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ed. by Marvin J. Taylo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 Abingdon, 1966 : 85-93.  
———. *The Miracle of Dialogue*. 김 관석 역, 대화의 기적.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75.  
Kraemer, Hendrik. *The Communication for the Christian Faith*. 임 춘갑 역, 그리스도교 신앙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 종로서적, 1981.  
Leypoldt, Martha M. *Learning is Change*.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71.  
Mc Laughlin, Raymond. *Communication for the Church*. Grand Rapids : Zondervan, 1968.  
Nouwen, Henri. *Creative Ministry*. 성염 역, 새 시대의 사목. 서울 : 성바오로 출판사, 1979.  
Reid, Clyde. *Groups Alive-Church Alive*. New York : Harper & Row, 1969.  
Schools, Peter. *Man in Communication*. Toronto : The Association for Reformed Scientific Studies, 1967.  
Sherrill, Lewis Joseph. *The Gift of Power*. New York : Macmillan Company, 1963.  
Wagner, Peter. *Frontiers in Missionary*. 전 호진 역, 기독교 선교 전략.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8.  
Zuck, Roy B. *Spiritual Power in Your Teaching*. 권성수 역, 성령과 교육. 서울 : 영음사, 1977.